

미리보는 어린이 신간 기획들

〈지식의 뿌리〉 〈솔거나라〉 등 굵직한 기획 다채로워

출판사들마다 어린이날을 전후해 참신한 아동물을 기획하고 있다. 현재 기획단계에 있거나 출간을 바라보고 있는 아동물들의 면면을 미리 살펴본다.

출판사마다 야심찬 기획들

그림책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고 있는 '마루벌'과 '보림'은 이번에도 어린이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데 한몫하는 기획물을 낼 예정이다. 마루벌(대표 신태식)이 야심찬 기획으로 내놓는 책은 모두 시리즈물. 《지식의 뿌리》 백과와 세권으로 된 '마루벌 좋은 그림책' 시리즈다.

5월 초 1차분 4권이 출시될 예정인 '지식의 뿌리' 백과는 프랑스의 갈리마르 출판사의 시리즈로 전40권 완간을 목표로 계약 체결한 기획물. 어린이들이 능동적으로 책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다. 《살아 있는 우주》 《재미있는 미술 여행》 《인류의 은인, 불》 《음악, 인간의 오랜 친구》 등이 나오는데 구성·편집이 독특하다. 투명종이 페이지, 접히는 페이지, 들춰보는 페이지, 칼라 스티커 등 어린이들이 직접 만져보면서 관심있는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마루벌이 외국 그림책에 기대고 있는 것에 반해 보림(대표 권종택)은 우리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국내 최초의 그림동화로 승부를 걸고 있다. 〈솔거나라〉 시리즈(전33권)는 동경 국제도서전시회에서 독립부스를 마련해 선보였던 책이다. 5월 중에 나올 책은 《김치는 싫어요》(최신양 글, 나애경 그림) 《장승》(주강현 글, 이규경 그림) 《갯벌》(유애로 글·그림)

등. 이 시리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그중 《김치는 싫어요》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최신양씨가 직접 참여해 어린이들이 잘 먹지 않는 김치의 우수성에 대해 글로 풀고 전통소재에 걸맞는 분위기의 삽화로 어린이들의 과학적 상상력을 돋울 예정이다.

놀이 위주의 액트북 등 다채로운 시리즈도

놀이위주의 '액트북'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출판사도 있다. 그동안 이색적인 놀이방법을 〈열린나라〉 시리즈에서 시험적으로 수용, 기획출간했던 성인문화사(대표 서준호)가 이번에는 《던져라! 잡아라! 홈런 꼬리공》(마이클 캘리건 구성)과 《버블 버블 싱》(존 캐시디·데이비드 슈타인 지음) 《날아라! 에어로비》(존 캐시디 구성) 등의 또다른 놀이책을 선보인다.

세권의 액트북은 거창하게 말하면 스포츠와 과학을 결합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놀이방법의 유연성을 길러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던져라! 잡아라! 홈런 꼬리공》은 부록으로 들어 있는 꼬리가 달린 야구공을 가지고 테니스나 미니야구, 골프까지 할 수 있도록 기획돼 야외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아이디어가 참신한 학습용 어린이책도 출판사들이 주력하고 있는 기획분야.

삼성출판사(대표 김진용)는 예전에 선보였던 학습시리즈 《워크업》의 연장에 선 기획으로 《지능업》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0세부터 5세까지 그림을 통한 연령별 인지능력 향



출판사들마다 '어린이날'에 맞춘 신간기획 출간에 한창이다. 사진은 교보문고 어린이 서적 코너.

상을 목적으로 한 그림책이다. 또 상반기 중에 《지구》 《우주》 《우리몸》 등 국민학생용 〈과학만화〉도 출간할 예정이다.

대교출판사(대표 강영중)에서는 국민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알쏭달쏭과학도서〉(8권) 시리즈를 발간할 계획이며, 동화 형식을 통해 수학을 익히도록 꾸민 〈수학퍼즐〉(4권)도 완간할 예정이다.

이외에 고려원, 웅진출판, 국민서관은 동화 중심의 아동물을 기획하고 있다. 먼저 고려원은 삼성문예상을 수상한 김지민의 《기억 너른의 일기》(가제)와 《초록반 아이들》(김태영 지음) 《모여라 꼬마악동》(김숙희)을 펴낼 예정이다.

웅진출판은 심팔사락을 풀어쓴 《어린이 심팔사락》(전2권)과 웅진그림동화 시리즈 《개구리 세상구경》의 후속편, 또 《위대한 화가

아름다운 그림 70선》(우리누리 지음, 김성민 그림)을 내걸고 있다. 《위대한 화가...》은 김홍도, 정선, 윤두서, 이중섭, 백남준 등 옛날과 현대에 이르는 화가와 그림을 소개한 책이다. '책사랑' 시리즈도 8권까지 진행중인데 주로 국민학교 고학년들이 읽을 만한 창작동화집이다. 임정진, 권정세, 이현주, 노경실, 조영규 등 동화작가와 현직 교사들이 참여한 다.

한편 국민서관은 3월에 냈던 '도라몽 시리즈'의 후속편을 기획하고 있으며 《멸국이 점속 한문속어》의 2, 3권을 진행중이다. 예림당에서도 각자 자기 생일에 맞춰 살 수 있도록 한 총366권짜리 〈버스테이 북〉을 5월중 60권까지 발간해 선물용 도서로 홍보할 예정이다.

—배은희 기자

한국출판문화진흥
아동부문
출판상
1994

아카데미 유아교육동화
리얼리얼 리얼리얼 리얼리얼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영역별
연령별

아카데미
유아교육동화 리얼리얼으로 아이를 영재로 키우세요!

알콩달콩 유아교육동화는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 1 MBC유아프로그램 '뽀뽀'의 작가 조문현 선생님이 집필
- 2 국내 최고 일러스트레이터 20명의 생생한 그림
- 3 전체 60권을 3~4세용 30권, 5~6세용 30권으로 단계별 구분
- 4 각 단계를 인지, 사회성, 정서, 탐구력, 언어발달의 다섯영역으로 세분화
- 5 각권마다 유아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 '함께 보는 어른에게' 수록

유아 그림책의 차별화 선언!



전 60권 • 3~4세용: 30권(값120,000원) • 5~6세용: 30권(값120,000원) • 날권 판매 가능: 각권 4,000원

동아출판사
TEL: 861-4818/853-5608